

현종 비 명성왕후의 복약 기록 연구 - 『승정원일기』의 의안을 중심으로 -

²박주영, ¹국수호, ²김남일, ²차웅석

¹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²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A Study on Clinical Records of King Hyeonjong's Queen, Queen Myeongseong, Focusing on Cases Recorded in the *Seungjeongwon Ilgi* (*The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of Joseon Dynasty* 承政院日記)

²Jooyoung Park, ¹SooHo Kug, ²Namil Kim, ²Wungseok Cha

¹Dept. of Korean Medicine, Graduate School, Kyung Hee University

²Dept. of Medical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Queen Myeongseong was the wife of King Hyeonjong, the 18th king of the Joseon Dynasty, and the mother of King Sukjong. The clinical records of Queen Myeongseong are summarized on the basis of the *Seungjeongwon Ilgi* (*The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of Joseon Dynasty* 承政院日記) and reviewed through *Donguibogam*. Queen Myeongseong gave birth to one male and three female children in the time of the queen. She took Geumgaedangguihwan (金櫃當歸丸), Dalsaengsan (達生散), Antaeum (安胎飲) during her pregnancy and Gungguitang (芎歸湯) during postnatal care. Since 1669, chest tightness, sleeplessness, arm pain and numbness of arms had been appeared. Ondamtang (溫膽湯) and Dodamtang (導痰湯) were used but they were not effective. However, when her symptoms were regarded as a benign tumor due to cold and wetness,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use of Ohjuksan (五積散). In 1683, when king Sukjong was caught in a smallpox, she took care of him. She exorcised in the middle of winter to pray for her son's recovery, and died of the flu.

Key words : Korean medical history, Queen Myeongseong, *Seungjeongwon Ilgi*, Clinical Records, *Donguibogam*

I. 서론

명성왕후는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청풍김씨(淸風金氏) 김우명(金佑明)과 송씨(宋氏)의 딸이자 대동법 시행과 화폐 보급에 힘쓴 김육의 손녀이다. 인조 20년(1642년) 5월 17일 장통방(長通坊) 사제에서 태어났으며, 효종 2년(1651년) 11월 10세의 나이에 현종과 혼인하여 세자빈으로 책봉되었다. 현종 즉위년(1659년) 5월에 현종이 즉위하자 왕비의 자리에 올라 현종 사이에 1남 3녀를 두었다. 숙종 9년

(1683년) 12월 창경궁에서 42세로 사망하였다. 시호는 현렬희인정현문덕명성왕후(顯烈禧仁貞獻文德明聖王后)이고, 능호는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의 동구릉 묘역 송릉(崇陵)으로 현종과 함께 묻혀있다.

명성왕후의 친필 언간으로는 숙명공주에게 답장을 쓴 『숙명신한첩』에 1편, 숙희공주에게 쓴 언간이 『숙희신한첩』에 1편, 딸인 명안공주에게 보낸 언간 4편까지 총 6편의 언간이 있다.¹⁾ 그 외 송시열에게 언문 편지를 보내고 그를 조정으로 불러 들여 서인 세력을 지지 세력으로 삼고자 했다. 명성왕후는 송시열에 대해서 “유학자의 종주(宗主)”라 칭했으며, 송시열은 명성왕후를 가리켜 “여중요순(女中堯舜), 즉 여인 중의 요, 순 임금”이라 화답했다.²⁾

접수 ▶ 2019년 05월 01일 수정 ▶ 2019년 05월 28일 채택 ▶ 2019년 05월 27일
교신저자 ▶ 차웅석,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로 26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553호
Tel : 02-961-9446 E-mail : chawung@khu.ac.kr

1) 한소연. 「조선시대 왕후들의 언간 서체 특징 연구」. 한국사상문화학회지. 2013;69(69):406.

2) 이남희. 「조선 후기 현종비 명성왕후 언간의 특성과 의미」. 영주어문학회지. 2017;35:97-98.

조선 국왕의 복약 기록 연구는 활발히 진행 되고 있으나, 왕후의 복약 기록 연구는 많지 않다. 명성왕후에 대한 선행 연구는 「숙종 초 ‘홍수의 변’과 명성왕후 김씨의 정치적 역할」³⁾, 「17세기 청풍김씨 가문의 정치적 역할과 위상 : 현종비 명성왕후 집안을 중심으로」⁴⁾, 「조선후기 현종비 명성왕후(明聖王后) 인간의 특성과 의미」⁵⁾ 등 주로 역사적, 정치적 연구 위주로 진행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명성왕후의 일대기 및 복약 기록에 대해 연구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 첫 단계로 『승정원일기』를 토대로 명성왕후의 복약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으로 삼았다. 그 다음 단계로 한의학적 문헌을 통해 고찰을 진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조선 왕실에서 행해졌던 내의원 의 부인과 진료에 대해 파악하고 현대 임상에서 활용해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II. 본론

1.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명성왕후의 구체적인 복약 기록을 연구하기 위해 먼저 『승정원일기』의 기사를 검색하였다. 명성왕후의 세자빈 시절, 왕비 시절, 왕대비 시절에 해당되는 명성왕후의 증세 및 복약 기록 확인은 국사편찬위원회의 『승정원일기』 데이터베이스 자료(URL: <http://sjw.history.go.kr>)를 토대로 하였다. 명성왕후가 세자빈으로 책봉된 효종 2년(1651년)부터 명성왕후가 사망한 숙종 9년(1683년)까지로 기간을 한정하여 검색하였고, 명성왕후의 세자빈 시절은 ‘빈궁’으로, 왕비 시절은 ‘내전’, ‘중궁전’, ‘중전’으로, 왕대비 시절은 ‘(왕)대비전’, ‘자전’으로 각각 검색을 진행하였다.

『승정원일기』 데이터베이스 자료에서 각각의 검색어를 통해 검색해본 결과 세자빈 시절 94건, 중전 시절 837건, 왕대비 시절 1141건, 총 2072건의 검색 건수를 확인하였다. 그 다음 작업으로는 연구자가 원문을 해석하여 『동의보감』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승정원일기』 효종 2년부터 숙종

9년까지의 검색어와 검색 건수 결과는 다음의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1. 『承政院日記』 효종 2년부터 숙종 9년까지의 검색어와 검색 건수

재위기간	검색어	검색 건수
세자빈 : 1651(효종 2) ~1659(효종 10)	빈궁	94
중전 : 1659(현종 0) ~1674(현종 15)	내전	171
	중궁전	203
	중전	463
왕대비 : 1674(숙종 0) ~1683(숙종 9)	(왕)대비전	445
	자전	696
합계		2072

2. 『승정원일기』 내 명성왕후의 복약 기록

1) 세자빈 시절

명성왕후는 효종 9년(1658년) 1월 7일, 8일, 10일, 17일 4차례에 걸쳐 팔물탕을 복용하였고 3월 28일, 29일 2차례에 걸쳐 금출탕을 복용하였다. 금출탕은 『의학입문』과 『동의보감』에 기재되어 있는 처방이며, 『동의보감·부인문』 반산을 보면 “부인이 임신하여 3, 5, 7개월 쯤 반드시 유산되는 경우에는 금출탕, 안태환을 먹어 그 열을 내리는 것이 좋다. 만약 기혈이 부족하면 미리 팔물탕을 먹어서 유산하지 않게 예방 한다.”⁶⁾고 하였다.

금출탕 : 임신 4~5개월째 번번이 유산이 되어 불안한 것을 치료하는데 그것은 속에 열이 심하기 때문이다. 자금 3돈, 백출 1돈 반. 위의 약들을 썰어서 1첩으로 하여 물에 달여 먹는다.

명성왕후는 세자빈 시절 팔물탕을 복용한 지 2달 만에 금출탕을 복용하였으며, 『승정원일기』 내에서 팔물탕과 금출탕의 용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명성왕후 뿐이다.⁷⁾ 이를 통해 명성왕후가 임신 중이었음을 추정해볼 수 있고, 유산기가 있어 시아버지 효종의 명으로 효종 9년 1월에 팔물탕, 효종 3월에 금출탕을 먹은 것으로 보인다. 왕후가 세

3) 한지희. 「숙종 초 ‘홍수의 변’과 명성왕후 김씨의 정치적 역할」. 고려사학회지. 2008;(31):145-176.

4) 이해지. 「17세기 청풍김씨 가문의 정치적 역할과 위상 : 현종비 명성왕후 집안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5) 이남희. 「조선후기 현종비 명성왕후 인간의 특성과 의미」. 영주어문학회지. 2017;35:97-122.

6) 허준. 『동의보감』. 서울:법민문화사. 2007:1655.

7) 박영룡. 「혜경궁 홍씨의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의학적 연구 : 『승정원일기』 내 용약 기록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23.

자빈 시절에 출산을 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유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명성왕후는 효종 9년 4월 24일 구역감을 보였고 5월 4일 얼굴의 붓기가 있었으나 따로 한약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명성왕후가 세자빈 시절 복용했던 처방과 그 이유는 다음의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2. 명성왕후가 세자빈 시절 복용했던 처방과 그 이유

날짜	처방 내용	처방 이유
효종 9년 1월 7일	팔물탕	몸조리
효종 9년 1월 8일		
효종 9년 1월 10일		
효종 9년 1월 17일		
효종 9년 3월 28일	금출탕	유산 방지
효종 9년 3월 29일		
효종 9년 4월 24일	구역감 있으나 처방은 없음.	
효종 9년 5월 4일	붓기가 있으나 처방은 없음.	

2) 왕비 시절

현종 즉위년(1659년) 효종이 승하하고 현종이 보위에 올랐다. 같은 해 5월 28일 임금 현종은 중전에게 삼출탕을 들이지 말라는 명을 내린다. 6월 3일, 6월 5일 금계당귀환을 복용한 것으로 보아 왕비가 임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금계당귀산은 『금계료략』에 최초로 보이며 출산을 수월하게 도와준다고 하였다. 『의학입문』에서는 마른 사람이 혈이 부족하고 열이 있어 태동이 불안할 때 활용한다고 하였다.⁸⁾

금계당귀산 : 임신부가 의당 먹어야 할 것으로서 혈을 보하고 열을 내려준다. 습관성 유산에도 복용하며 그 원인을 없애 후환이 없게 한다. 황금, 백출, 당귀, 천궁, 백작약 각각 1냥.⁹⁾

『승정원일기』 현종 즉위년(1659년) 7월 17일 “중전이 태기가 있으니 잘 보살피야 한다.”라고 하였다. 10월 20일 중전에게 흉격이 막힌 증세가 보여 달생산에 지각, 사인 5푼, 산사육 7푼을 가하여 달여 올렸다. 달생산은 주진형의

『격치여론』에서 대복피, 인삼, 진피, 백출, 작약, 소엽, 감초, 당귀, 청충, 황양뇌, 지각, 사인 등으로 구성된 처방이다. 『동의보감』에서는 산달에 복용하면 출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였다.

달생산 : 임신부가 산달에 20여 첩의 약을 먹으면 쉽게 해산할 뿐 아니라 병을 앓지 않는다. 대복피(술로 씻은 것) 2돈, 감초(볶은 것) 1돈 반, 당귀, 백출, 백작약 각각 1돈, 인삼, 진피, 자소엽, 지각, 축사(간 것) 각각 5푼.¹⁰⁾

11월 4일 출산이 다가오자 산실청을 설치하고 제조와 의관 등이 숙직을 시작하였다. 11월 5일 중전의 달생산 복용을 중지하였다. 11월 11일 약방에서는 더 이상 약을 올리지 않겠다고 보고하였다. 11월 14일 중전에게 상한(傷寒)과 유사한 증후가 있어 안태음에 백출을 반으로 줄이고 숙지황을 건지황으로 대체하고 자소엽과 향부자를 1돈 추가하여 복용하였다. 안태음은 『의학정진』에 처음으로 수록된 처방으로 임신부의 태동불안이나 복통, 요통, 입맛이 없을 때 복용한다고 하였다. 『동의보감』 등 후세에 쓰이는 안태음은 고금출탕(古今朮湯)과 사물탕을 합방하였고 행기하는 사인, 소엽, 감초를 가하여 건비행기(健脾行氣), 청열양혈(淸熱養血)함으로써 보태안태(保胎安胎)하는 의미를 가진다.¹¹⁾

안태음 : 태동으로 불안한 것을 치료하는데 임신 5~6개월이 된 때 몇 첩을 먹으면 아주 좋다. 백출 2돈, 조금 1돈 반, 당귀, 백작약, 숙지황, 축사(간 것), 진피 각각 1돈, 천궁, 자소엽 각각 8푼, 감초 4푼.¹²⁾

11월 15일 중전이 공주를 출산하였다. 그 날로 복통이 있어 궁귀탕에 현호색, 도인 각 1돈, 계심, 몰약 7푼을 넣어 복용하였다. 궁내에서는 내심 왕자를 기대했으나 공주가 탄생하자 의관들은 궁인들에게 “실망하는 기색을 보이지 말라.”는 당부를 하였다. 18일과 19일에도 연달아 궁귀탕을 복용하였다. 궁귀탕은 궁중에서 여인이 출산한 직후 상용한 처방이며, 불수산과 용량만 다를 뿐 처방 구성은 같다. 산전에는 반드시 불수산으로 처방하였고 산후에는 반드시 궁

8) 락영룡. 「혜경궁 홍씨의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의학적 연구 : 『승정원일기』 내 용약 기록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21.

9) 허준. 『동의보감』. 서울:법인문화사. 2007:1656.

10) 허준. 『동의보감』. 서울:법인문화사. 2007:1659.

11) 김창석. 「안태음 및 교역사물탕이 랫드의 모체와 태자에 미치는 영향.」. 상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6-7.

12) 허준. 『동의보감』. 서울:법인문화사. 2007:1653-1654.

귀탕으로 처방하였다.¹³⁾

궁귀탕 : 산전 산후의 여러 가지 병과 혈훈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 횡산이나 역산, 또는 태아가 뱃속에서 죽어 나오지 않는 것, 혈붕이 멎지 않는 것 등을 치료한다. 이 약을 산달에 먹으면 태아가 여위어서 쉽게 해산할 수 있고, 산후에 먹으면 나쁜 피가 저절로 나온다. 천궁, 당귀 각각 5돈.¹⁴⁾

11월 20일부터 11월 22일까지 중전의 손발이 뜨겁고 수면이 불안정한 증후가 생겨 양혈지황탕을 복용하였다. 11월 22일부터는 사물탕에서 숙지황 대신 건지황을 대체하고 황련을 1돈 가하여 복용하였다. 원대 이고(李杲)는 온보(溫補)를 즐겨 사용하면서도 부인의 혈붕(血崩)을 치료할 때는 양혈청열약인 양혈지황탕을 활용하였다.¹⁵⁾ 『동의보감』 내 적작약이 주약으로 배오된 방제 중에서는 사물탕, 양혈지황탕, 작약감초탕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백작약이 적작약으로, 숙지황이 생지황으로, 자감초가 생감초로 바뀌어 청열양혈(淸熱涼血), 활혈거어지통(活血祛瘀止痛), 소옹산종(消癰散腫), 청열해독(淸熱解毒) 작용이 강화되었다.¹⁶⁾

양혈지황탕 : 산후발열을 치료한다. 생지황 3돈, 적작약, 당귀, 천궁 각각 1돈 반.¹⁷⁾

현종 원년(1660년) 1월 13일 명성왕후는 한열(寒熱), 두통(頭痛), 구토(嘔吐), 불한출(不汗出) 등의 증세로 소시호탕과 시호사물탕을 복용하였다. 1월 14일 증세가 전날과 비슷하여 시호사물탕을 달여 올렸다. 임신, 출산 전에는 크게 아픈 증세가 없었던 명성왕후에게 출산 이후 열증이 나타났다. 상한증으로 판단하고 소시호탕을 활용하였는데 별 차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산후의 열이 자궁에 들어가서 생긴 열증으로 판단하여 시호사물탕으로 청열(淸熱)해주는 치료를 시행하였다. 시호사물탕을 복용한 후 약간의

효험이 있었다. 시호사물탕은 소시호탕에 생지황, 천궁, 적작약, 당귀 즉 사물탕을 합한 처방이다. 금대 유완소(劉完素)는 한량약(寒涼藥)을 즐겨 사용하였지만 산후병의 치료에 있어서는 한온(寒溫)을 병용하였다. 특히 산후허리(產後虛羸)에 있어 한(寒)하면 십전산(十全散)을 사용하는데 사군자탕에 황기, 육계를 가한 것이고, 열에는 삼원탕(三元湯)을 사용하니 사물탕에 소시호탕을 가한 것이며¹⁸⁾, 이것이 곧 시호사물탕이다.

소시호탕 : 소양병의 반표반리증으로 오한과 신열이 반복되는 것을 치료하는데, 내열을 풀어주면서도 외사도 풀어주므로 상한을 치료하는 처방 중의 왕도가 된다. 시호 3돈, 황금 2돈, 인삼, 반하 각각 1돈, 감초 5푼.¹⁹⁾

시호사물탕 : 산후발열과 열이 혈실에 들어간 것을 치료한다. 시호, 생지황 각각 2돈, 천궁, 적작약, 당귀, 황금 각각 1돈, 인삼, 반하, 감초 각각 5푼.²⁰⁾

1월 15일부터는 여열(餘熱)이 남아 가감양격산을 복용하기 시작하였다. 두통이 있을 때 상초의 열로 보고 가감양격산에 강황과 석고를 가하여 복용하였고, 변비가 있을 때 하초의 열로 보고 마인환을 복용하였다. 2월 11일에는 열담(熱痰)으로 보고 청기화담탕을 복용하였다. 양격산은 송대의 『태평혜민화제국방』에 처음으로 수록된 처방이다. 양격산에서 대황, 망초, 붕밀을 빼고 길경을 넣은 것이 가감양격산이며, 『동의보감·화문』에 기재되어 있다. 알레르기 질환 중 상초의 열로 인하여 발생한 질환에 임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²¹⁾ 청기화담환은 가감양격산에서 반하, 진피, 적복령 즉 이진탕에 죽엽 대신 형개를 넣은 것이다.

가감양격산 : 육경의 열을 물러가게 하고 또한 상초에 있는 열을 치료한다. 연교 2돈, 감초 1돈 반, 치자, 황금, 길경, 박하, 죽엽 각각 5푼.²²⁾

13) 박영룡. 『해경궁 홍씨의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의학적 연구 : 『승정원일기』 내 용약 기록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27.
14) 허준. 『동의보감』. 서울:법인문화사. 2007:1689.
15) 윤현중. 「금원시대 및 명청시대의 부인과 질병사에 대한 연구」. 대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20.
16) 이치용. 「『동의보감』 중 백작약과 적작약이 주약으로 배오된 방제의 활용에 대한 비교연구」. 상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43.
17) 허준. 『동의보감』. 서울:법인문화사. 2007:1679.
18) 윤현중. 「금원시대 및 명청시대의 부인과 질병사에 대한 연구」. 대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11.
19) 허준. 『동의보감』. 서울:법인문화사. 2007:1080.
20) 허준. 『동의보감』. 서울:법인문화사. 2007:1679.
21) 이윤실, 한재경, 김윤희. 「가감양격산이 RBL-2H3 비만세포와 OVA/alum에 감작된 생쥐에 미치는 항알레르기 효과」.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2012; 26(4):11.
22) 허준. 『동의보감』. 서울:법인문화사. 2007:1175.

청기화담환 : 열담을 치료한다. 반하 2냥, 진피, 적복령 각각 1냥 반, 황금, 연교, 치자, 길경, 감초 각각 1냥, 박하, 형개 각각 5돈.²³⁾

첫째 딸 명선공주는 14세에 천연두를 앓아서 어린 나이에 사망하게 된다. 명선공주를 출산한지 2년이 지난 현종 2년(1661년) 8월 15일 명성왕후는 아들을 낳았고, 이 아들이 훗날의 숙종이다. 출산한 이후 복통과 설사의 증세가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니 사라져서 약을 따로 복용하지는 않았다. 다음해 현종 3년(1662년) 10월 중전의 출산 시기에 맞춰 산실청을 설치하였고 의관들이 숙직을 시작하였다.

12월 4일 둘째 딸 명혜 공주를 출산한 명성왕후의 산후 조리를 위해 궁귀탕에 포황과 오령지를 각 1돈씩 가하여 달여 올렸다. 포황과 오령지는 어혈로 인한 각종 통증에 활용한다. 명혜 공주는 9세에 천연두를 앓아서 이른 나이에 사망하였다. 현종 6년(1665년) 4월 10일 의관들이 산실청을 설치하도록 청하였고, 명안 공주는 이 시기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6월 29일 명성왕후에게 열이 나는 증세가 나타나 소시호탕을 달여 올렸다.

명안 공주는 7세 때인 1671년 공주에 봉해졌다. 1680년 해창위 오태주와 혼례를 올렸다. 명안 공주를 애뜻하게 여기는 명성왕후의 마음은 『명성대비언찰(明聖大妃諺札)』에 잘 드러나 있다. 명성왕후는 명선, 명혜 공주를 천연두로 잃고 막내 딸 명안 공주에게 문안 편지를 자주 보냈다. 명안 공주 역시 어릴 때부터 병약하였기 때문에, 문안 편지에는 명안 공주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과 천연두에서 회복했을 때 기뻐하는 마음, 시집을 간 후 그리워하는 마음이 담겨있다.

출산 이후 열증이 보이는 것 외에는 무탈하던 중전이였으나, 현종 10년(1669년) 3월 1일 중전의 괴증에 대해 처음 언급이 되었다. “중전에 복중에 괴이한 증이 있으며 이것을 앓은 지 수년이 되었으나 여러 탕약과 뜸 치료로 효과를 보지 못하였고 점차 심해졌다.”고 하였고, 의관들은 온천욕을 권했다.

『현종실록』을 보면 현종 10년(1669년) 3월 15일 왕실 가족이 온양 온천으로 행차를 떠났다가, 약 1달 간 온천욕

을 하고 돌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이 왕대비를 받고 온양 온천으로 행차하는데, 중궁이 따르고 네 공주가 배행하였다.²⁴⁾ 상이 왕대비를 모시고 온천으로부터 어가를 돌려 서울로 향했다. 중전도 같이 출발했다.”²⁵⁾

의관들은 중전 명성왕후의 괴증을 알게 된 이후 현종 14년(1673년) 4월 28일부터 5월 22일까지 흥격의 기운이 상승되는 증후로 인해 온담탕에 백출을 거하고 변향부자 1돈에 소엽 7푼을 가하여 처방하였고 이는 점차 효과를 보았다. 5월 4일에는 청간해울탕에서 숙지황 대신 견지황, 변향부자 1돈 반, 시황련 7푼, 황금 1돈, 청피 5푼을 가하여 복용하였다. 잠을 못 자고 번열(煩熱) 및 심신조동(心神躁動)의 증세가 지속되자 5월 5일 청간해울탕의 복용을 중단하고 다시 온담탕을 복용하였다. 온담탕은 당대 『비급천금요방』에 처음 수록된 이래 역대 의가에서 심담허겁(心膽虛怯)을 치료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본방을 심담허겁으로 야기되는 심장병 및 고혈압, 신경쇠약, 노인성치매, 현훈, 진중(癩症)에도 응용하고 있다.²⁶⁾

온담탕 : 심과 담이 허약하고 겁이 많아 사소한 일에도 잘 놀라고 꿈자리가 사나우며, 허번이 생겨서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을 치료한다. 반하, 진피, 백복령, 지실 각각 2돈, 청죽여 1돈, 감초 5푼.²⁷⁾

현종 15년(1674년) 2월 2차 예송논쟁이 벌어짐과 동시에 중전의 흥격의 기운이 격상하는 증후가 현종 15년 2월 20일 다시 심해졌다. 2월 30일부터 인삼죽여탕과 독삼탕을 들이기 시작하였다. 3월 2일은 손과 팔에 통증이 있고 인후 번갈이 있어 원기가 극히 허해진 가운데 간화가 역상하였다고 여겨 화문회금환을 올렸다. 3월 3일은 백회에 뜸을 뜨고 영신도담탕을 복용하였다. 3월 4일은 백회에 뜸을 뜨고 청금강화단을 복용하였다. 3월 6일 독삼탕과 가감생맥산, 3월 7일 영신도담탕, 3월 13일 왼쪽 팔의 마비감 등이 생겼다. 3월 14일, 3월 15일 뜸을 떴다.

4월 2일 징가적취로 담화가 상승한 것으로 파악하여 팔미소요산을 올렸다. 4월 6일 가미소요산과 영신도담탕을 복용, 4월 15일 가슴, 복부, 허리, 옆구리까지 당기는 증상이 차도가 없었다. 4월 16일 오적산을 복용한 이후 가슴, 복부

23) 허준. 『동의보감』. 서울:법인문화사. 2007:370.

24) 『현종실록』 현종 10년(1669년) 3월 15일 “上奉王大妃幸溫陽溫泉, 中宮從, 四公主陪行.”

25) 『현종실록』 현종 10년(1669년) 4월 16일 “上奉王女妃, 自溫泉回鑾, 中殿同時動駕.”

26) 임준모. 「온담탕 전탕액이 심장기능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2.

27) 허준. 『동의보감』. 서울:법인문화사. 2007:330.

가 당기는 증상이 감소하였지만 오심 증세가 있어 밤부터 새벽까지 구토하였다. 의관들은 숙직을 시작하였고 구토로 기운이 상한 증전에게 독삼탕을 달여 올렸다. 4월 17일 번열, 구토, 요통의 증상이 감소하였다. 4월 19일 가슴과 배꼽이 막힌 증후가 위중하여 파울단작탕을 달여 올렸다. 4월 21일 백회에 땀을 뜨고 등심일단전탕을 달였고 4월 22일부터는 증세가 완화되어 사물탕을 달였다. 5월은 두통이 있어 주사안신환과 날이 더워짐에 따라 6월 16일까지 더위를 식히기 위한 생맥산을 복용하였다.

스트레스로 인한 간울로 인하여 흥격협통에 징가적취를 앓은 것으로 보이며, 현대 의학적으로 자궁이나 하복부쪽 쪽으로 생각할 수 있다. 초기에 의관들은 울화로 인한 담으로 파악하여 담을 내려주는 온담탕, 영신도담탕이나 울혈을 풀어주는 소요산을 처방하였으나 효능을 보지 못하였다. 이후 오적산을 복용한 이후 당기는 증세가 감소한 것으로 보아 이는 한습의 정체로 인한 징가적취로 보인다. 다음의 <표 3>은 명성왕후가 왕비 시절 복용했던 처방과 그 이유를 보여준다.

표 3. 명성왕후가 왕비 시절 복용했던 처방과 그 이유

날짜	처방 내용	처방 이유
현종 즉위년 6월 3일	금계당귀환	임신 중 보약
현종 즉위년 6월 5일		
현종 즉위년 10월 20일	달생산 가 지각, 사인 5푼, 산사육 7푼	임신 막달에 흥격이 막힘
현종 즉위년 11월 14일	안태음에 백출을 반으로 줄이고, 숙지황을 건지황으로 대체, 자소엽과 향부자 1돈	출산 전 날 상한
현종 즉위년 11월 15일	명선 공주를 출산함	출산 후 복통
	궁귀탕 가 현호색, 도인 각 1돈, 계심, 몰약 7푼	
현종 즉위년 11월 18일	궁귀탕	산후 조리
현종 즉위년 11월 19일		
현종 즉위년 11월 20일	양혈지황탕	손발 뜨겁고 수면이 불안함
현종 즉위년 11월 21일		
현종 즉위년 11월 22일	사물탕에서 숙지황 대신 건지황으로 대체하고 황련 1돈 가함	수족장열, 불면
현종 원년 1월 13일	소시호탕	한열 두통 구토 불한출(不汗出)
현종 원년 1월 14일	시호사물탕	
현종 원년 1월 15일	가감양격산	여열(餘熱)
	가감양격산 가 강활 석고	두통
	가감양격산 합 마인환	변비
현종 원년 2월 11일	청기화담탕	열담(熱痰)
현종 2년 8월 15일	순 왕자 출산	
현종 3년 12월 4일	명혜 공주 출산	산후 조리
	궁귀탕 가 포황, 오령지 각 1돈	
현종 6년 4월 10일	명일(明日) 산실청 설치	
현종 6년 6월 29일	소시호탕	발열
현종 10년 3월 1일	피증을 처음 언급함	
현종 10년 3월 15일	온양 온천으로 온천욕 떠남	
현종 14년 4월 28일부터 5월 22일	온담탕에 백출을 거하고 변향부자 1돈에 소엽 7푼을 가	흥격의 기운이 상승
현종 14년 5월 4일	청간해울탕에서 숙지황 대신 건지황, 변향부자 1돈 반, 시황련 7푼, 황금 1돈, 청피 5푼	불면 번열 심신조동(心神躁動)
현종 14년 5월 5일	온담탕	불면
현종 15년 2월 30일	인삼죽여탕 독삼탕	흥격의 기운이 상승

현종 15년 3월 2일	화문회금환	수완(手腕) 통증, 인후번갈
현종 15년 3월 3일	백회 뜸 영신도담탕	
현종 15년 3월 4일	백회 뜸 청금강화단	
현종 15년 3월 6일	독삼탕 가감생맥산	
현종 15년 3월 7일	영신도담탕	
현종 15년 3월 14일	뜸	왼쪽 팔의 마비감
현종 15년 3월 15일		
현종 15년 4월 2일	팔미소요산	징가적취 담화상승
현종 15년 4월 6일	가미소요산 영신도담탕	가슴, 복부, 허리, 옆구리당기는 증상
현종 15년 4월 16일	오적산 독삼탕	가슴, 복부, 허리, 옆구리당기는 증상 구토
현종 15년 4월 19일	파울단작탕	가슴과 배꼽이 막힌 증후
현종 15년 4월 21일	백회 뜸 등심일단전탕	
현종 15년 4월 22일	사물탕	증상 완화
현종 15년 5월부터	주사안신환	두통
현종 15년 6월 16일까지	생맥산	서병(暑病)

3) 왕대비 시절

현종 15년(1674년) 8월 18일 명성왕후의 남편 현종이 승하하였다. 왕후는 상중에 식사를 끊고 계속해서 곡을 하였고 8월 24일 감기에 걸렸다. 흉격이 답답해졌고 변열 증세가 다시 심해졌다. 9월 3일 왕후의 건강을 걱정한 내의원에서 식사를 다시 하기를 권했다. 9월 19일에는 왕대비전(자의대비)에서 곡하는 것을 멈추고 식사를 하도록 권하였다. 하지만 왕후는 지속해서 곡을 하였고 식사를 하지 않았다. 10월이 되자 건강이 더욱 악화되었다.

명성왕후는 남편이 사망한 후 약 5개월간 지속해서 곡을 하면서 곡기를 줄였으므로 이전에 앓았던 흉격번올의 증후가 다시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종의 왕릉인 승릉이 경기 구리시 인창동에 조성되었다. 그 해 12월이 되어서야 발인을 할 수 있었다. 12월 7일 발인에 명성왕후가 성 밖으로 거동하려 했으나 왕대비전에서 날이 차니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였다. 또한 12월 16일부터 허약해진 왕후에게 식사를 회복하길 지속적으로 권하였다.

국장을 마치고 아들 숙종이 임금으로 즉위하였으며 명성왕후는 왕대비가 되었다. 이듬해 왕대비의 증세는 계속 비슷하였다. 4월 25일 숙종이 기우제를 지내려고 하자 임금의 안위가 걱정되었던 왕대비는 아들이 기우제를 직접 지

내는 것을 중지하도록 하고하였다. 숙종 2년(1676년) 8월 2일 왕대비가 양혈청화탕을 복용하였다. 숙종 3년 5월 왕대비의 기후가 안녕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숙종 5년(1679년) 7월 21일에도 숙종이 친히 기우제를 지내려 하자 왕대비가 중지하도록 권하였다. 숙종 5년에도 왕대비의 기후가 안녕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숙종 6년(1680년) 10월 26일 숙종의 중전인 인경왕후가 위증하다는 말을 숙종에게 곧바로 전할지 여부를 왕대비 명성왕후에게 물어 보았다. 10월 27일 인경왕후가 사망했다는 비보를 숙종에게 알리는 문제에 대해 명성왕후에게 물어보았다. 숙종의 첫 번째 부인 인경왕후는 10세에 세자빈으로 간택되었고 20세에 천연두로 사망하였다. 숙종과의 사이에서 두 딸을 낳았으나 일찍 사망하였다. 숙종이 장옥정이라는 궁녀를 알게 된 이후 인경왕후는 숙종의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인경왕후가 사망한 다음해인 숙종 7년(1681년) 3월 26일 명성왕후는 같은 서인 세력 중에서 새 며느리를 들고자 하였다. 두 번째 왕후로 민유중의 딸인 인현왕후로 정하고 대신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숙종 7년 7월 24일 명성왕후는 집선전으로 궁을 옮겼다. 문제는 숙종 9년에 발생하였다. 숙종 9년(1683년) 10월 13일 『숙종실록』 한양에 천연두(痘疾)이 크게 창궐하자 명성왕후는 숙종을 보호하기 위해 사람들의 궐내 출입을 제한하였다.²⁸⁾ 10월 14일 한성부

28) 『숙종실록』 숙종 9년(1683년) 10월 13일 경술 “政院啓曰, 卽者慈殿, 以諺書下教于本院曰, 近來都城之內, 痘疫大熾, 無處無之, 悚懼之心, 日夜靡弛. 闕下禁標內, 則常加申飭禁察, 至於朝士, 則又皆齋宿出入事, 但闕中往來吏胥, 及入直軍卒輩, 俱是雜處, 閭閻之人, 雖令略加禁飭, 而當此處處彌

에서는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을 10일 내에 성 밖으로 내보내기로 하였다.²⁹⁾ 10월 17일 숙종은 거울에 백성들이 내보내지 말고 금표를 조금 넓게 정하고 켈내 입직하는 군대에 전염되지 않도록 하라는 명을 내렸다.³⁰⁾ 10월 18일 숙종이 두질에 걸렸다. 당시 숙종의 나이 23살이었다.

『승정원일기』를 보면 10월 19일 숙종은 이틀 전부터 두통, 오심 등의 증상을 보였다. 의관들은 진맥을 하여 외감의 증후로 판단하고 승마갈근탕 가 형개수, 황금 각 1돈, 자소엽 8푼을 달여 올렸다.³¹⁾ 숙종이 두질에 걸린 이후에 육선(肉膳)을 금지하였다. 계속해서 육식을 하다보면 두창의 치료가 더디어질 상황이었다. 따라서 신하들이 이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왕비전에 물어 진상을 허락해달라고 한 것이며 결국 왕대비전도 이를 허락하였다.³²⁾ 숙종의 탕약 치료와 식이 요법 관련해서 명성왕후가 관심을 갖고 깊이 관여하였고, 이때까지 명성왕후는 본인의 건강을 제대로 챙길 수가 없었다.

『숙종실록』 숙종 9년(1683년) 11월 22일 “왕대비(명성대비)가 불예(不豫)하다.”는 언급이 처음으로 나온 것으로 보아 이때부터 왕실에서 명성왕후의 질환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숙종 9년 12월 5일 명성왕후가 크게 놀라 평안하지 않다는 소식이 들려 의관들은 금은화차와 청심환을 올렸고 그 후 약간 진정되었다는 대목이 나온다.³³⁾ 그러나 12월 5일 이날 바로 명성왕후는 사망한다. 별다른 증상이나 치료의 언급이 없이 갑작스레 사망한 것이다. 다음의 <표 4>는 명성왕후가 왕대비 시절 복용했던 처방과 그 이유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

표 4. 명성왕후가 왕대비 시절 복용했던 처방과 그 이유

날짜	처방 내용	처방 이유
현종 15년 8월 18일	현종 승하	
현종 15년 8월 24일		상한. 흥격 답답. 번열
현종 15년 9월 3일	내의원에서 식사를 권함	
현종 15년 9월 19일	왕대비전(자의대비)에서 식사를 권함	
현종 15년 12월 16일	식사를 권함	
숙종 2년 8월 2일	양혈청화탕	
숙종 9년 10월 13일	한양에 천연두 창궐	
10월 18일	숙종 천연두에 걸림	
숙종 9년 11월 22일	“명성대비가 불예(不豫)하다.”	
11월 30일	“목욕계제로 인하여 감질(感疾)이 위독해졌다.”	
12월 5일	금은화차, 청심환	
	명성왕후 사망	

III. 결론

명성왕후는 세자빈이었던 효종 9년(1658년) 1월 시아버지 효종의 명으로 팔물탕을, 3월에는 금출탕을 복용하였다. 팔물탕과 금출탕은 임신부의 유산을 방지하는 약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왕후가 세자빈 시절에 임신을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효종 9년 4월 24일은 구역감을 보였고 5월 4일에는 얼굴의 붓기가 있었으나 따로 한약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다만 출산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결국 유산되지 않은 것인가 추정해볼 수 있다.

명성왕후는 왕비 시절에 1남 3녀를 출산하였다. 현종 즉위년(1659년)에는 금궤당귀환, 달생산, 안태음을 복용하고 명선 공주를 출산하였고, 궁귀탕으로 산후조리를 하였다.

滿之日, 安保其舉皆淨潔乎? 卽今方痛之類, 若或一時出送城外, 則必有致傷之患, 此則雖不可爲, 而若都內士大夫及民人家, 未疫之類, 預令移避城外, 則必無相繼傳染之患, 城內乾淨, 其勢似易, 依此爲之何如事, 下教矣.”

29) 『숙종실록』 숙종 9년(1683년) 10월 14일 신해 “漢城府啓曰, 命下矣. 就議于大臣, 則以爲卽今閭閻未疫之類, 雖未詳其數之多少, 而意必不少, 若使急迫出送, 則止接無處, 致傷可慮, 明日爲始, 限以一句, 並令出送城外, 定限內不爲移避者, 隨現論罪, 宜當云. 依此舉行之意, 敢啓. 傳曰, 知道.”

30) 『숙종실록』 숙종 9년(1683년) 10월 17일 갑인 “傳曰, 日昨漢城府, 以毋論士大夫及常漢, 未疫之類, 定日出送城外事, 啓稟知委, 此蓋出於仰體慈聖, 靡所不用其極之意, 而第反復思惟, 都內未疫之類, 想必不少, 雖有間架分入之令, 當此寒節, 許多人口, 安保其一一依接, 而無致傷之患乎? 不可不更爲變通, 一以示軫恤之意, 一以嚴戒慎之道, 令該府未疫人等, 姑勿出送, 禁標定限, 比前稍廣, 似爲便當. 至於關內入直軍兵等, 另加嚴節, 毋得薰染事, 並爲分付于該府·該曹, 以爲割卽舉行之地.”

31) 『승정원일기』 숙종 9년(1683년) 10월 19일 병진 “藥房再啓曰, 臣等, 伏承問安之批, 與金有鉉·崔聖任·權楡等諸御醫相議, 則頭痛惡心諸症, 皆出於外感之候, 升麻葛根湯, 加荊芥穗·黃芩各一錢, 紫蘇葉八分, 連進二貼, 以爲趁卽發散之地, 宜當云. 此藥, 卽爲劑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32) 고대원, 김동욱, 김태우, 차용석. 「숙종의 두창에 관한 『승정원일기』의 의안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12;25(1):9.

33) 『승정원일기』 숙종 9년(1683년) 12월 5일 임인 “大王大妃殿, 以承傳色, 下教于侍藥廳曰, 朝者大殿, 往省慈殿之候, 大有驚動不平之候, 故金銀花茶, 和清心丸用之, 然後少爲鎮定矣.”

현종 원년(1660년) 1월에는 열증이 있어 소시호탕, 시호사물탕, 가감양격산을 복용하였다. 현종 2년(1661년) 순 왕자(숙종)를 출산하였고 별 다른 탕약을 복용하지는 않았다. 현종 3년(1662년)에는 명혜 공주를 출산하고 궁귀탕을 복용하였다. 현종 10년(1669년)부터 흉격열증, 불면, 팔 쪽의 통증, 마비감 등으로 청간해울탕, 온담탕, 인삼죽여탕, 독삼탕, 영신도담탕, 청금강화단 등을 복용하였다. 현종 15년(1674년)부터 가슴, 복부, 허리, 옆구리 당기는 증상이 나타나 한습으로 인한 징가적취로 판단되어 오적산 등을 복용하였다.

신지혜는 숙종 대에 유독 국상이 많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숙종이 즉위한 1674년은 국상이 겹쳐서 일어났다. 2월 효종 비 인선왕후의 국장이 이루어지고, 8월 인선왕후의 혼전(魂殿)을 지키던 현종이 승하하여 또다시 국장을 치르게 된 것이다. 현종의 국장을 치르고 숙종 2년까지 혼전의례를 마친 뒤 4년 만인 숙종 6년에 숙종비 인경왕후의 국상이 발생한다.”³⁴⁾

명성왕후는 시아버지 효종의 장례, 시어머니 인선왕후의 장례, 인선왕후의 장례 중 사망한 남편 현종의 장례, 두 딸의 장례, 며느리 인경왕후의 장례를 차례대로 지냈다. 또한 아들 숙종의 건강을 항상 염려하였다. 숙종이 천연두에 걸렸을 때 크게 놀라며 목욕재계를 통해 아들의 쾌유를 빌었다. 숙종이 천연두에서 회복된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지만 명성왕후 본인은 독감으로 몸져누웠고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12월 5일 본인의 장례를 지낼 때 절약하여 검소하게 지내라는 말을 유언으로 남기고 사망하였다.³⁵⁾³⁶⁾

본 논문은 명성왕후의 세자빈 시절부터 왕대비 시절까지 왕후가 앓았던 질병을 일대기에 걸쳐 연구를 진행한 논문이다. 『승정원일기』와 『조선왕조실록』을 바탕으로 어떤 질병을 앓았는지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의관들이 시행한 변증 및 처방은 역대 의가들의 한의학적 문헌을 토대로 의사학적 고찰을 진행하였다.

명성왕후는 임신이 확인된 이후에는 금례당귀산, 금출탕,

팔물탕, 안태음 등을, 출산이 다가올 때 달생산 등을, 출산 이후에는 궁귀탕 등을 복용하였다. 산후 발열이 있어 양혈지황탕, 소시호탕, 시호사물탕, 가감양격산, 청기화담환 등을 활용하였고, 심담허겁의 증세로 인해 온담탕 등을 복용하였다. 『승정원일기』 내 명성왕후의 복약 기록을 검색하고 의사학적 고찰을 진행하였던 본 연구를 통해 우리는 왕실 여성의 건강한 임신, 출산 및 산후 조리를 도와주는 한의학적 처방과 관련된 일련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사학 등 타 학문과의 연관성을 통해 한의학이 갖는 의사학적인 가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왕후의 질병 기록을 통해 오늘날의 부인과 임상 진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조선시대 다른 왕후들의 처방, 진단, 예후, 합병증 등에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8년도 경희대학교 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KHU-20181080).”

참고문헌

1. 『承政院日記』.
2. 『朝鮮王朝實錄』.
3. 『東醫寶鑑』.
4. 고대원, 김동윤, 김태우, 차용석. 「숙종의 두창에 관한 『승정원일기』의 의안 연구」. 한국사학회지. 2012;25(1):

34) 신지혜. 「조선 숙종대 왕실 상장례 설행공간의 건축특성 : 빈전·산릉·혼전을 대상으로」.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50-52.
35) 『숙종실록 숙종 10년(1684년) 1월 15일 신사』 “后每以我殿下未經痘瘡爲憂, 癸亥十月, 痘發上躬, 后大驚慮, 齋沐請代, 如戊午時. 十一月上疾平復, 而后因示慙少愈, 而念上不自克, 親往臨視, 見上祛疾太半, 爲之欣然失喜. 未幾疾復革, 上力疾入侍, 后念上氣疲亟, 請就安, 而上終不退, 仍命大臣行禱, 如丙辰焉. 十二月初五日未時, 竟昇遐于儲承殿之西別堂, 春秋四十有二.” “계해년 10월에 전하의 몸에 두창이 나매, 후께서 크게 놀라고 염려하여 무오년처럼 목욕재계하고 자신이 갈음하기를 청하시니, 11월에 성상께서 병환이 나오셨는데 후께서는 이 때문에 지쳤다가 조금 나오셨으나 전하께서 스스로 이겨 내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친히 가서 살펴보시고는 성상께서 병환이 태반이 나오신 것을 보고 반가와 몹시 기뻐 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후께서 병환이 다시 위독하시매, 성상께서 병환을 무릅쓰고 입시(入侍)하셨는데, 후께서는 성상께서 기후가 지치실 것을 염려하여 안정하기를 청하셨으나, 성상께서는 끝내 물러가지 않고 이어서 대신(大臣)에게 명하여 병진년처럼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12월 5일 미시(未時)에 마침내 저승전(儲承殿)의 서별당(西別堂)에서 승하시니, 춘추는 42세였습니다.”
36) 『숙종실록 숙종 10년(1684년) 1월 15일 신사』 “有遺教數百言. 蓋曰: “由初終以至窆藏, 其諸具皆自予具修, 勿以復煩有司. 其中外進香, 亦皆停止, 而朝夕饋奠器數, 並令太半減省.” “유교(遺教) 수백 마디가 계셨는데, 대개 ‘초상부터 묻을 때까지 쓸 계구를 내가 다 만들었으니, 다시 유사(有司)를 번거롭게 하지 말고, 중외(中外)에서 진향(進香)하는 것도 다 멈추고, 아침·저녁 제전(饋奠)의 그릇 수도 모두 태반을 줄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43-51.

5. 광영룡. 「혜경궁 홍씨의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의사학적 연구 : 『승정원일기』 내 용약 기록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6. 김창석. 「안태음 및 교애사물탕이 랫드의 모체와 태자에 미치는 영향. 상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7. 신지혜. 「조선 숙종대 왕실 상장례 실행 공간의 건축특성 : 빈전·산릉·혼전을 대상으로.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8. 윤현중. 「금원시대 및 명청시대의 부인과 질병사에 대한 연구. 대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9. 이남희. 「조선후기 현종비 명성왕후 언간의 특성과 의미. 영주어문학회지. 2017;35:97-122.
10. 이윤실, 한재경, 김윤희. 「가감양격산이 RBL-2H3 비만세포와 OVA/alum에 감작된 생쥐에 미치는 항알레르기 효과.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2012;26(4):10-23.
11. 이치용. 「『동의보감』 중 백작약과 적작약이 주약으로 배오던 방제의 활용에 대한 비교연구. 상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12. 이혜지. 「17세기 청풍김씨 가문의 정치적 역할과 위상 : 현종비 명성왕후 집안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13. 임준모. 「온담탕 전탕액이 심장기능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14. 한소연. 「조선시대 왕후들의 언간 서체 특징 연구. 한국사상문화학회지. 2013;69(69):401-428.
15. 한지희. 「숙종 초 '홍수의 변'과 명성왕후 김씨의 정치적 역할. 고려사학회지. 2008;(31):145-176.
16.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URL:<http://sjw.history.go.kr>).
17.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URL:<http://sillok.history.go.kr>).
18.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고전명저총서(URL:<http://jisik.kiom.re.kr>).
19.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URL:<http://db.itkc.or.kr>).
20.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URL:<http://people.aks.ac.kr>).